

강이야기

3

River & Culture



이영희 | 초록미당영농조합법인
(dylfarm@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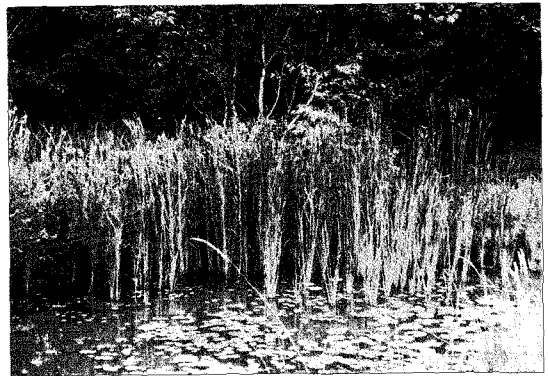
쓰임새 많은 뛰어난 줄과 부들

1. 머리글

우리의 하천은 자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직강화되며 하천변 습지가 줄어들면서 식물의 개체수가 줄고 사라져 가고 있다. 다행히도 자연하천 복원사업의 여파로 많은 양의 식물이 하천에 식재되고 있다. 습지에서 잘 자라는 부들과 줄은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꽤나 친근한 식물로 함께 해 왔다.

부들의 열매는 지혈작용이 가능하여 한방에 포황이라 하여 약재로 이용되었다. 줄은 구황식물로 열매를 채집하여 이용하였고 서양에서도 와일드 라이스(wild rice), 곧 야생쌀이라 불렀다. 옛날 김포지방에 줄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줄과 벼를 교배시켜 만든 것으로 벼알이 굵고 밥맛이 좋으며 여러 가지 약 효과가 뛰어나서 최고의 쌀로 쳐 주었듯이 이미 수백년전 우리의 선조들은 유전공학을 이용한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하여 이용하였으며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열매가 없다면 줄과 부들은 일반인들의 눈에겐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식물로 우리의 하천습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수질정화식물이다.

2. 부들



〈그림 1〉 쯤부들



〈그림 2〉 부들



〈그림 3〉 무늬부들

● 아주 옛날, 어느 외딴섬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토끼의 소원은 육지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육지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토끼는 궁리하던 끝에 바닷가에 나가 악어를 불렀다. 이에 악어가 나오자 토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얘, 악어야 너 친구들이 밋이나 되니?” 그러자 악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꾸했다. “아주 많단다. 저 물 속에 내 친구들이 아주 많아.” 이렇게 시작한 악어의 토끼의 대화는 급기야는 서로의 친구가 많다고 시비가 붙어 토끼는 악어에게 친구를 더 많이 부르는 쪽

이 이기면 진 쪽은 이긴 쪽에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 물론 악어도 동의하였지만 어떻게 셀 수 있는지를 묻자 토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우선 네가 네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으도록 해. 그런 다음 이 섬에서 저쪽에 있는 육지까지 한 줄로 나란히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씩 수를 세고 그런 다음에 다시 네가 내 친구들을 세면 되지 않겠니?” 결국 악어는 승낙하고 바닷속에 들어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토끼가 시킨 대로 친구들을 바다 위에 일렬로 늘어서게 했다. 그러자 섬과 육지 사이에는 다리가 놓인 것처럼 되었다. 그리고 토끼는 일렬로 늘어선 악어 위를 강충강충 건너뛰며 수를 세었다. 이윽고 토끼는 악어의 등을 강충강충 뛰어 육지로 건너갔다. 그러더니 악어에게 비웃으면서 달아나 버렸다. 토끼에게 깜박 속은 악어는 분에 못 이겨 이를 으드득 갈았다. 그리고는 토끼를 쫓아가 잡으려고 했으나 악어의 느린 걸음으로는 도저히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육지로 건너온 토끼는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잘 먹고 지내다가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고 있다가 악어에게 붙잡혔다. 악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속은 것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토끼에게 속은 데 대한 양감음으로 토끼의 온몸을 마구 물어뜯었다. 토끼의 온몸에서는 피가 흘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토끼는 가까스로 악어에게서 빠져나와 어느 들판으로 가서 숨을 몰아쉬며 드러누웠다. 피를 너무 흘려 죽을 것만 같았다. 이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신이 토끼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토끼에게 다가가 묻자 토끼는 전후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는 구원을 요청했다. 신은 토끼의 행위가 과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네 소행은 과심하다만 불쌍해서 살려주겠다. 여기서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솥 같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따서 모아 상처 난 곳에 바르고 있으면 피도 멈추고 상처도 아물 것이다.” 신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 버렸다. 토끼는 신이 일러 준 곳으로 가보았다. 과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는 솥 같은 열매가 많이 있었다. 토끼는 그 솥 같은 열매들을 따서 상처 난 곳에 바르고는 며칠을 보냈다. 그러자 놀랍게도 피도 멈추고 상처도 아물었다. 뿐만 아니라 악어에 의해 뽑힌 털도 다시 나게 되어 전과 같은 몸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 토끼가 약으로 사용한 풀이 다름 아닌 포황(蒲黃·부들꽃)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들이나 연못가 혹은 늪지, 하천변 등에서 자라는 이 풀을 보면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야외에서 갑자기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났을 때에는 이 풀을 이용하면 놀라운 효험을 보게 될 것이다.

- 학명 : *Typha orientalis*
- 분포지역 : 한국 · 일본 · 중국 · 우수리 · 필리핀
- 서식장소 : 연못 가장자리와 습지 물이 흐르지 않는 고인 물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종자의 개체수가 많아 번식력이 뛰어난 수생식물로 모래가 섞인 사질토에서 잘 자란다.
- 개화기 : 6~7월
- 용도 : 잎은 방석을 만들고, 화분은 한방에서 포함이

라 하여 지혈(止血)·통경(通經)·이뇨제(利尿劑)로 사용한다.

- 꽃말 : 기백 용기, 기백, 용기, 순종, 용기

3. 줄



- 구장초라고 하며 한방에서 장내대사를 도와주고 숙취에도 도움이 되며 갈증에도 좋다고 하여 한약제로 이용한다. 또한 줄은 맛이 달고 성질이 차고 유기산, 게르마늄, 망간(Mn), 코발트, 칼슘, 아연 등의 성분이 들어 있다. 또한 줄의 열매는 가을철에 따서 갈것질을 벗겨내고 햇볕에 말려서 먹는다. 쌀 대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고 녹말, 당분 등이 있어 영양이 풍부하다. 또한 줄줄을 끓인 물에 목욕을 하면 피부 깊숙이 숨어있는 온갖 병원균과 노폐물 독소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 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살결이 옥같이 고

와지고 습진, 옴, 종기 따위의 온갖 피부병들이 낫는다. 그러므로 줄풀은 최고의 해독제이기도 하다. 농약중독이나 식중독, 술중독, 화학약품 중독 같은 갖가지 중독에 줄풀뿌리를 생즙을 내어 마시거나 달여서 마시면 신기하다 싶을 만큼 효과를 본다. 이렇듯 한방과 민간요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생식물이 줄이며 수질정화능력도 뛰어난 품목이다.

- 학명 : *Zizania latifolia*
- 분포지역 : 한국·일본·중국·시베리아 동부
- 서식장소 : 연못이나 냇가로 자체 번식력은 뛰어나나 종자에 의한 번식이 잘 안되어 홍수에 의한 뿌리의 유실에 의해 새로운 개체의 번식이 대부분이다.
- 개화기 : 8~9월
- 용도 : 감부기에 걸린 대는 마디 사이가 길어지지 않고 물속에서 자라서 버섯같이 되며 식용으로 한다. 검은 포자는 화장품 또는 세피아 그림물감의 대용품으로 한다.

4. 맺음말

우리 하천은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다시금 태어 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은혜 하는 마음으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하천은 추억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곳으로 남아야 하는 곳이다. 많은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관찰로,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하천변을 다니기 좋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양의 수생식물을 복원하여 선조들에게 받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하천복원은 계속되어야 하고 많은 투자로 많은 물을 살려 생명이 숨쉬는 하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